

한국어의 주격 중출 구문

이운영, 이정민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The Construction of Multifl Nominatives in Korean

Woonyoung Lee, Chungmin Lee
The department of Linguistics, SNU

요약

한국어에는 주격 표지를 가진 명사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구문이 자주 나타난다. 이러한 구문을 주격 중출 구문이라고 한다. 주격 중출 구문은 크게 부분-전체 구문, 양화사 유동 구문, 그리고 심리 술어 구문으로 나누어진다. 본고에서는 부분-전체 구문과 양화사 유동 구문은 함수-논항 관계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심리 술어 구문은 의미역할과 자리 이동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것은 의미적 측면과 통사적 측면을 함께 고려한 것으로 좀 더 일관성 있는 설명을 위한 접근이라 하겠다.

1. 들어가는 말

한국어의 주격 중출 구문은 여러 각도에서 논의가 되어 왔다. 주격 중출 구문의 종류도 그만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부분-전체 구문, 양화사 유동 구문, 심리 술어 구문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먼저 부분-전체 구문과 양화사 유동 구문은 함수-논항 구조로 분석을 하고, 심리 술어 구문은 주격 표지를 가진 성분의 의미 역할을 고려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접근은 주격 중출 구문의 의미적 특성을 통사적 분석과 결부시켜서 일관성 있는 설명을 가능하게 해 준다.

(1) 영화는 얼굴이 왼쪽이 예쁘다.

위의 문장에서는 주격 표지(화제(topic) 표지도 포함)가 붙은 명사구가 세 번이나 나타난다. 이 경우 이러한 명사구들의 의미 분석과 관계, 그리고 통사적 지위가 문제가 된다. 먼저 의미적인 면부터 살펴보면, 가장 큰 특징이 맨 앞에 나오는 명사는 반드시 한정 명사구로 화제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예는 아주 특별한 경우, 영화에 강한 초점이 주어질 때에만 가능하다.

(2) 영화가 얼굴이 왼쪽이 예쁘다.

2. 함수-논항 구조와 주격 중출 구문

앞서 밝혔듯이 함수-논항 구조는 부분-전체 구문과 양화사 유동 구문에서 나타나는 주격 중출 현상을 설명하는데 기반을 제공한다. 먼저 부분-전체 구문의 예부터 살펴보겠다.

이 경우는 대조의 의미가 두드러져서, '다른 사람이 아닌 영화'라는 뜻을 가지게 된다. 이 외의 경우에는 반드시 화제가 나타나게 된다. 다음과 같이 화제가 나타나지 않은 문장은 불완전하게 된다.

(3) (??) 얼굴이 왼쪽이 예쁘다.

이렇게 부분-전체 구문이 화제를 필요로 하는 것은 이러한 구문에 나타나는 술어의 특징과 관련이 있다. 이정민[4]은 이러한 구문의 술어는 상태술어나 비대격 술어 등에서만 가능하다고 보았는데, 이는 모두 개체 층위 술어를 가리키고 있다. 사실 부분-전체 구문이 아닌 일반적인 구문에서도 개체 층위 술어는 주어에 화제 표시 '-는'이 붙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반면 단계 층위 술어의 주어에는 '-는'이 붙어 화제를 만드는 경우가 드물다.

- (4) a. 사람은 표유동물이다.
- b. (??)사람이 표유동물이다.
- (5) a. 개가 뛰어나고 있다.
- b. (??)개는 뛰어나고 있다.

(4a)와 같은 문장이 가능한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 대조적 초점을 받을 때에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사람과 독수리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독수리가 아니라 사람이 표유동물이다'라는 의미에서만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5b) 문장도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그 경우는 대조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화제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본다면 앞서 문장에서 화제가 나타나야만 하는 것도 술어의 특성, 혹은 술어의 자질로 설명할 수가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TOPIC]이라는 자질을 설정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즉, 개체 층위 술어는 [+TOPIC], 단계 층위 술어는 [-TOPIC]이라는 자질을 가짐으로써 개체 층위 술어의 맨 앞 주어 자리에는 [+TOPIC] 자질을 가지는 명사구만이 올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배경에서 함수-논항 구조를 적용해 보겠다. 이것은, 먼저 하나의 논항이 함수와 결합한 후 다시 새로운 함수를 만든다는 것을 기본 생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로 (1)의 문장을 분석해 보면, 먼저 '왼쪽'이 술어 '예쁘다'와 결합을 한다. 그리고 다시 '왼쪽이 예쁘다'가 새로운 함수를 형성하여 '얼굴'을 논항으로 받게 된다. 그리고 '얼굴이 왼쪽이 예쁘다'는 또 다시 '영희'를 논항으로 받는 함수가 된다. 이러한 식의 분석은 일단 각각의 명사가 주격 표지

를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다. 즉, 각각의 결합 단계에서는 일종의 주어처럼 나타나기 때문에 주격 표지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결합이 한 번, 혹은 두 번에 끝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앞서 설명한 술어의 특성 때문이다. 즉, [+TOPIC]을 자질로 가지는 술어의 주어는 반드시 화제여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구문에서는 논항으로 화제를 취하기 까지 계속해서 새로운 함수를 형성하여 논항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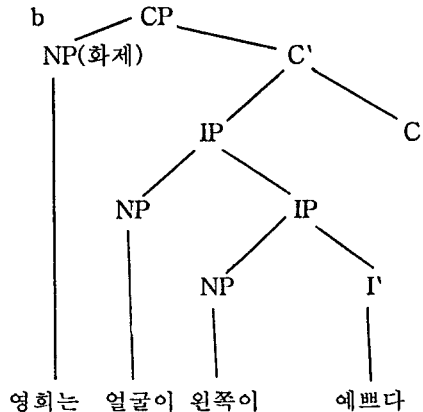
이제 이러한 의미적 분석에 맞는 통사적 구조를 알아보기 전에 지적할 것은, 이러한 구조에는 엄격한 순서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즉, 술어에 가까운 명사구일수록 더 작은 부위를 나타낸다는 점이다. (1) 예문에서는 '왼쪽'이 가장 작은 범위이고, '왼쪽'을 포함하는 '얼굴'이 그 다음, 그리고 '영희'는 가장 큰 범위가 된다. 이 순서는 예외없이 지켜져야 한다. 물론 다음과 같은 예문을 제시할 수 있다.

(6) 얼굴은 영희가 예쁘다.

하지만 이 경우는 이 자체가 기저 형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일단 이 경우의 '얼굴'은 화제의 의미보다는 대조의 의미가 강하다. 이러한 구문은 '영희' 뒤에 있던 '얼굴'이 대조적 화제로써 화제의 자리로 이동한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의미구조적 분석을 바탕으로 (1) 문장의 통사적 구조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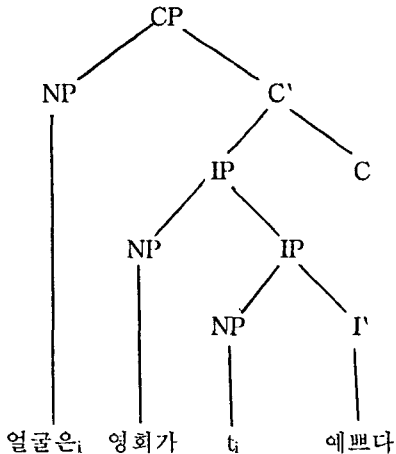
(7) a. 영희는 얼굴이 왼쪽이 예쁘다.



위와 같은 분석을 하게 되면, 먼저 IP의 [SPEC] 자리에 오는 두 명사구가 동일한 주격 표지를 가진다는 것을 무리없이 설명할 수가 있고, 이와 달리 맨 앞에 오는 명사구는 다른 지위를 가지고서 화제가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화제는 중립 주어가 변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기저 형성된 것임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반복되는 IP가 NP와 자매 관계를 가진으로, 저층의 IP는 고층의 IP에 대해서 마치 술부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는 '왼쪽이 예쁘다'가 새로이 하나의 함수가 되어 세 논항('얼굴')을 받는다는 함수-논항 구조적 설명과도 부합한다. 또한 앞서 보았던 순서의 문제도 여기서 해결이 가능하다. 이러한 통사적 분석을 따르면, 표면구조상으로는 부분-전체 순서를 어긴 것처럼 보이는 예문 (6)이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진으로 순서 제약에는 예외가 없게 된다.

(8) a. 얼굴은 영희가 예쁘다.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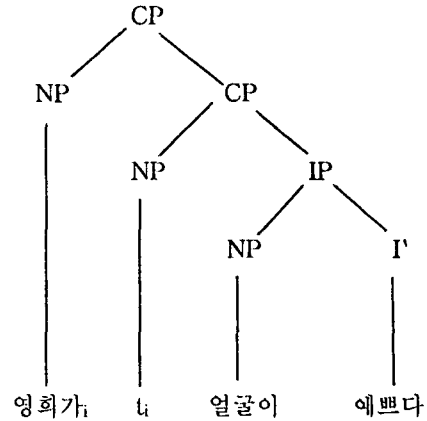


따라서 이 경우도 기저의 순서는 변함이 없다. 단지 이동을 통해서 표면 구조가 달라진 것 뿐이다.

이러한 통사적 구조는 (2)와 같이 화제가 아닌 명사구가 문두에 오는 문장도 분석 가능하게 해 준다.

(9) a. 영희가 얼굴이 예쁘다.

b.



즉, 이러한 구문은 원래 화제 자리에 있던 '영희'가 초점을 받으면서 부가된 CP의 [SPEC] 자리로 올라갔다고 분석할 수가 있다. 따라서 '영희는 얼굴이 예쁘다'와는 구조적으로 다른 구문임을 알 수가 있다.

통사 구조에서 마지막으로 얘기할 것은, 이렇게 초점을 화제보다도 우선해서, 가장 위에 있는 CP의 [SPEC] 자리에 놓는 것이 얼마만큼 타당성을 가지느냐 하는 것이다. 이것은 수없이 논의되어 온 소위 'donky sentence'의 경우와 비교하여 설명할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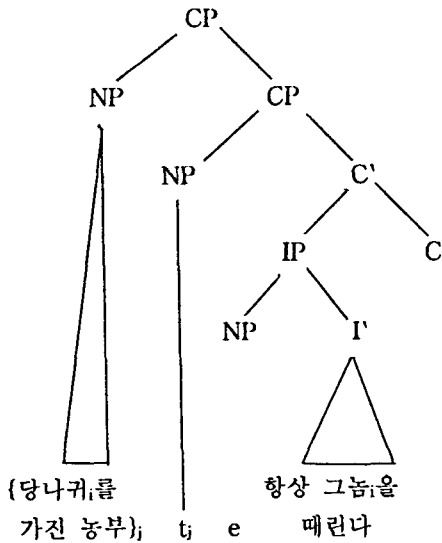
(10) a. 당나귀_i를 가진 농부는 항상 그놈_i을 때린다.

b. (??)당나귀_i를 가진 농부가 항상 그놈_i을 때린다.

일반적인 경우에 (10b)는 좋지 않은 문장이다. 이런 문장에서는 '당나귀'와 '그놈'이 공지지가 안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당나귀를 가진 농부'가 특별히 강한 초점을 받을 때는 위와 같은 공지시가 가능하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공지시가 가능하다는 것은 통사적으로 '당나귀를 가진 농부'가 '그놈'을 포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즉, 이 문장도 앞서와 같은 분석을 받는다면, 이것이 공지시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타당한 설명을 해 줄 수가 있다.

(11) a. 당나귀_i를 가진 농부가 항상 그놈_i을 때린다.

b.



물론 위의 구문에서 IP의 [SPEC]자리가 비어 있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초점이 문두 위치에 있게 분석하는 것은 부분-전체 구문뿐 아니라 다른 구문에서도 상당히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함수-논항 구조로 설명할 수 있는 두 번째 구문은 양화사 이동 구문이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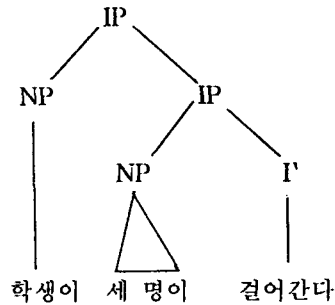
(12) a. 학생이 세 명이 걸어간다.

b. *세 명이 걸어간다.

이러한 양화사 이동 구문도 앞서의 부분-전체 구문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이 경우도 '세 명이 걸어간다'는 비록 주어와 술어를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한 문장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물론 문맥에서 '세 명'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가 나왔다면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앞에 '세 명'이 속한 명사가 나와야만 한다. 이 경우, '세 명'은 어떤 사람의 집합 속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다. 즉, 이 경우는 '학생'이라는 전체 집합이 있고, 이 중 일부가 '세 명'으로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분-전체 구문과 같은 분석이 여기서도 가능하게 된다. 먼저 이 구조를 통사적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3) a. 학생이 세 명이 걸어간다.

b.



이렇게 분석했을 때 한 가지 문제가 생긴다. 이는 앞서의 진정한 부분-전체 구문과의 차이점에서 생기는 문제이다. 앞서의 구문은 반드시 화제가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화제가 나타날 때까지 함수-논항 구조를 반복해야 했다. 하지만 이 경우는 화제가 나타나지 않아도 문장은 이상이 없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문장은 어색하다.

(14) (???)학생은 세 명이 걸어간다.

이 문장은 '학생'이 대조의 초점을 받을 때에만, 그리고 그 경우도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상태로만 가능하다. 따라서 문두에는 중립 주어가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러한 문제는 역시 술어의 자질을 살펴보면 해결할 수가 있다. 앞서 화제를 반드시 가져야 하는 술어는 개체 총위 술어로 [+TOPIC]이라는 자질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단계 총위 술어는 이와 반대로 [-TOPIC]자질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양화사 이동 구문의 술어가 개체 총위 술어라는 것을 보인다면, 이러한 문장의 문두에 화제가 오지 않는 것은 일관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게 된다. 그런데, 양화사 이동 구문의 술어가 일반적으로 개체 총위 술어라는 것은 예문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가 있다.

(15) a. 개가 세 마리가 뛰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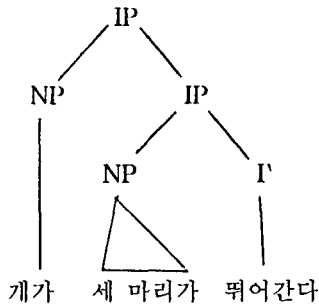
b. (???)개는 세 마리가 뛰어간다.

c. *개가 세 마리가 표유동물이다.

d. *개는 세 마리가 표유동물이다.

(15c)와 (15d)는 사용하지 않는 문장이다. 즉, 양화사 유동 구문은 게체 층위 술어하고만 결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또한 맨 앞의 명사가 차지하는 자리가 CP 바로 아래에 있는 IP의 SPEC자리로 중립 주어 자리를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문장이 완성될 수 있게 된다. 이 구조를 수형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16) a. 개가 세 마리가 뛰어간다.
b.



이제 마지막으로 문중에 화제 표지가 나타나는 양화사 유동구문을 간단히 살펴보겠다.

- (17) 개가 세 마리는 뛰어간다.
(15b) 개는 세 마리가 뛰어간다.

(17) 문장의 '세 마리'는 화제가 아니라 대조의 의미를 가진 초점이다. 즉, 모두 열 마리의 개가 있는데, 그 중 세 마리는 뛰어가고, 나머지는 가만히 있는 경우와 같은 상황에서 가능한 경우이다. 그런데 이 경우의 '세 마리'는 (15b)에서 대조적 화제로 사용된 '개'와는 좀 다른 성격을 가진다. 가장 큰 차이는 대조되는 집합의 차이이다. (17)의 대조집합은 같은 '개'라는 범주 안에서 {네 마리, 다섯 마리, ...} 등과 같은 수량사 이지만, (15b)의 대조집합은 {세, 말, 학생,...} 등과 같은 아주 다른 집합이 된다. 따라서 이들이 통사 구조상에서 차지하는 위치도 차이를 보인다. (17)이 중립 주어 아래에 위치하게 되는 반면, (15b)는 화제 위에 오게 되는 강한 초점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P3 참조)

3. 의미역할과 심리 술어 구문

심리 술어 구문은 표면상으로는 부분-전체 구문이나, 양화사 유동 구문과 같은 주격 중출 구문이다. 하지만 그 분석 방법은 동일하지가 않다. 먼저 심리 술어 구문의 예를 보겠다.

- (18) a. 나는 철수가 좋다.
b. 영화는 그 영화가 슬펐다.

심리 술어 구문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주어의 명사구가 일인칭인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만약 일인칭이 아닌 경우에는 과거형으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고, 실제 구어에서는 삼인칭을 주어로 쓰는 경우는 드물다. 이것은 심리 술어의 자질과 빈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심리 술어가 주어의 심리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그것을 제삼자가 이야기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어가 일인칭이던가 아니면 문장 속에서 전지적 시점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에도 앞서 언급했듯이 삼인칭 주어 구문은 과거 시제를 사용해야만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또 다른 특징은 문장 맨 처음의 명사는 화제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 (19) a. (??)내가 철수가 좋다.
b. (???)영화가 그 영화가 슬펐다.

(19a)는 대조적 초점으로만 가능하고, (19b)는 사용되는 예가 거의 없다. 이러한 화제 명사구는 또한 필수적으로 나타나야만 한다.

- (20) a. 철수가 좋다.
b. 그 영화가 슬프다.

(20a)는 화자인 주어 '나는'이 생략된 것으로만 가능하고, (20b)는 심리 술어 구문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8b)의 '슬프다'는 주어가 '그 영화'에 대해서 가지는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20b)의 '슬프다'는 영화 자체의 속성이다. 즉, 두 개의 술어가 서로 다른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분은 이의환[1]의 '좋다' 구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준대법을 이용해 쉽게 구분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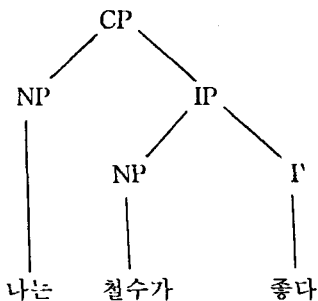
- (21) a. 선생님은 그 개가 무서우셨다.
 b. *그 개는 무서우시다.

이제 지금까지 살펴 본 특징을 의미역할과 자리 이동을 통해서 설명하겠다. 먼저 심리 술어는 반드시 Experiencer를 가져야만 한다. 그리고 이 Experiencer가 표면구조에서 화제로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는 주격 표지의 명사는 Theme을 의미역할로 가진다. 따라서 Experiencer가 없는 문장은 잘못된 문장이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이 동사적으로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가 문제로 남는다. 본고에서는 문두의 화제가 기저형에서 사격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보겠다. 즉, (18) 예문은 다시 써 보면 다음과 같게 된다.

- (22) a. 나에게(는) 철수가 좋다.
 b. 영희에게(는) 그 영화가 슬펐다.'

이 경우에도 사격에 화제 표지가 붙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이 경우의 화제 표지는 대조의 의미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철수가 좋다'라는 것의 주체에 대해서 나타낸다고 볼 때, 화제의 의미가 없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사격 자리에 있던 화제가 문두로 이동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 하다. 그리고 이와 함께 대격 자리에 있던 의미 역할 Theme을 가지는 명사구가 비어 있는 중립 주어 자리로 이동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은 동사적 구조를 가지게 된다.

- (23) a. 나는 철수가 좋다.
 b.



위와 같은 분석은 2장에서 보았던 다른 주격 중출 구문의 분석과도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다. 즉, 형성된 과정은 다르다고 해도 결과적인 모습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다.

4. 맺음말

지금까지 한국어에서 나타나는 주격 중출 구문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본고에서는 주격 중출 구문을 부분-전체 구문, 양화사 이동 구문, 심리 술어 구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 중에서 부분-전체 구문과 양화사 이동 구문은 함수-논항 구조와 술어의 자질을 이용하여 분석해 보았고, 심리 술어 구문은 의미역할과 자리이동을 통하여 설명하였다. 아직 미흡한 점들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적어도 일관성있는 의미, 통사적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나 하겠다.

참고문헌

- [1] 이익환, "이중주어 구문에 대한 분석," 말 12, pp. 199-220, 1987.
- [2] 박치원, "'NP-1이 NP-2이 P다' 구문의 통사론적 고찰," 언어연구회 발표 논문, 1993.
- [3] 이정민, "(비)한정성/(불)특정성 대 화제 (Topic)/초점, 국어학22, 1992.
- [4] 이정민, "Definite/Specific and Case Marking in Korean," *Theoretical Issues in Korean Linguistics*, pp. 325-341, CSLI, 1994.
- [5] 이정민, "Argument Structure and Psych-Predicates," J.K-Conference, 1991.
- [6] 이정민, "(In) Definites, Case Markers, Classifiers and Quantifiers in Korean,"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III*, pp. 469-487, 1989.
- [7] William O'Grady, "Grammtical Relations and Korean Syntax," *Linguistics in the Morning Calm 2*, 1988.